

노순동
시사저널 기자

어느 명문가 종부의 사연

추 석이 다가오니 또 골치가 아픈 여성들이 많을 것이다. 특히 결혼 초기 새댁들의 스트레스는 이만저만이 아니다. 명절은 성차별적인 가족 구조를 절감하는 계기가 되곤 하기 때문이다.

구조의 모순이 깊으면 사람들이 알아서 피를 내는 법. 집안 어른의 묵인 아래 훌쩍 여행을 떠나기도 하고, 친정과 시댁을 번갈아가며 명절을 쇠는 가족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다. 하지만 장남들은 전통의 명예를 여전히 나홀로 감당해야 하는 경우가 많다.

얼마 전 지방 취재를 갔다가 곱씹어볼 만한 이야기를 들었다. 빼대있는 가문의 종부인 김 아무개씨의 사연이었다. 어느덧 환갑을 눈 앞에 둔 그분은 아들이 없어 가문에서 양자를 들일 계획을 갖고 있었다. “아들이 없어 고충이 많으셨겠군요?” “그런데 다행이다 싶을 때도 있어요. 아들이 있었으면 그 아들이 장가나 제대로 갔겠어요.” 알고 보니 그분은 남편이 가문의 종손인 줄 모르고 결혼을 했고 결혼 한 뒤에도 주위의 눈총을 무릅쓰고 자녀의 교육을 위해 외지 생활을 하다가 뒤늦게 가문의 등지를 지키러 내려온 것이었다.

“다른 사람들은 사람을 위해 집이 있잖아요. 저는 집을 위해 사는 것 같아요.” 그가 말하는 집은 말 그대로 집, 즉 하우스를 일컫는 것이었다. 보존이 잘 된 양반 고택이라 보러오는 이가 많으니 끼니는 걸러도 청소는 거를 수 없고, 내 몸 편하자고 집을 고칠 수도

새 가구를 들여놓을 수도 없었던 것이다.

몸이 고달픈 것도 고달프지만 무엇보다 그는 종부에게 덧씌워진 이미지를 갑갑해하는 듯 했다. 명절만 되면 취재 요청이 줄을 잇는데 올해도 명절 음식 만드는 모습을 찍겠다고 해서 겨우 거절을 한 참이란다.

물론 고충을 털어놓는 그분의 모습에서 빼대있는 가문의 종부로서의 자부심을 읽는 것은 어렵지 않았다. 그런데 자신보다 그 가문을 지키는 책무에 시달리는 남편을 더 가여워했다. 시아버님도 이른 나이에 돌아가셨고 남편의 건강도 몹시 안좋은데, 종손이라는 부담에 평생 부대껴왔기 때문이란다.

양자 문제만 해도 그렇다. 예전에는 종손에게 후손이 없을 경우 가문에서 양자를 들이는 것은 자연스러운 관례였다. 그런데 그 집안은 양자의 생모가 반대해 여의치 않은 모양이었다. 가문의 틀 안에서 쉽사리 통용되던 관례가 더 이상 효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것이었다. 누가 그 생모를 탓하랴. 달라진 세상에서 옛 방식으로 가문을 지키는 일의 고달픔이 눈에 보이는 듯 했다.

그런데도 세상은 아름다운 옛 전통을 찾아 그들에게 카메라를 들이댄다. 그 과정에서 당사자가 자부심을 느낄 수도 있지만, 그것이 또 하나의 억압일 수 있겠다 싶다. 그분은 “집안 어른들은 이런 얘기, 입도 병긋 못하게 하시는데..”라며 겸연쩍게 웃었다. **PPFK**